생명과 삶을 위한 오리사 농민들의 투쟁

Farmers struggle for life and livelihood in Orissa

빈센트 라즈쿠마르(Vincent Rajkumar, 목사, 인도)

인도가 대영제국의 지배를 벗어난 지 66년 이상이 지났다. 이 60여년간의 기간은 산업화와 기간시설, 도시화의 영역에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가시적인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현대 소비주의에 의해 추동된 삶의 양식으로 변화되었다.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대개 경제개발을 의미한다. 개인 생산성 및 소득의 증대, 갖고 싶은 것은 살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및 편의시설을 만들어 개인에게 제공해 주는 일 등이다. 대부분의 아시아 나라들도 개발에 대한 이런 광의(廣義)의 정의를 믿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서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경제적 지표 이상이다.

인도 농촌의 일반적인 모습은 가난과 문맹과 삶을 위한 투쟁이다. 인도에서 빈곤은 아직도 중요한 문제이다. 전 인구의 80%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는 인도의 농촌(rural India)은 많은 부분에서 가난과 불행과 기아의 고향(home)이다. 도시의 일용직 노동자의 대부분도 또 다른 빈곤의 희생

자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인도에는 3억 4천만 명의 노동가능 인구가 있는데 그중 3천만 명 정도만이 조직화되어 있다. 미조직화된 부문에서 일하는 3억 명 이상의 사람 대부분은 농촌노동자들이다. 미조직화된 노동력의 대부분은 달릿계층(불가촉천민), 여성, 그리고 취약계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서로 연합하여 사회운동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길을 찾았다. 거기에는 환경, 취약계층(adivasi), 소작농, 혹은 달릿계층에 관한 것들이 있다. 이 운동은 점차 지난 20년간 세계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어오고 있다.

인도는 기본적으로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농업의 발전은 독립 초기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것은 전국적인 운동을 일으켰는데 정부로 하여금 농민들을 위한 효과적인 관개시설을 확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독립 이후 전기생산도 정부가 심각하게 다룬 목마른 영역(thrust area)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두 가지 이슈를 결합하여(combine) 크고 작은 댐을 건설하였다. 그런데 이 댐건설은 거주민 강제이주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대형 댐 건설 계획에 의한 강제이주는 오리사의 렝갈리(Rengali) 댐건설 계획에 반대한 지역 운동 전까지, 그리고 인도의 중앙에 건설하려던 댐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나마다 바카오 안돌란(Narmada Bachao Andolan, NBA, 나마다 구출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했다. NBA의 출범과 함께 댐건설반대운동은 강제이주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전환되었고, 이즈음에 와서는 환경운동으로 그 중심이 전환되었다.

인도에서 또 다른 가장 중요한 현재 이슈는 자연과 환경의 보전이다. 급격한 산업화 및 토지와 삶의 상업화로 인해 이것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물론 비슷한 목표와 목적을 지닌 환경단체(NGO)가 많기는 하지만,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집합적인(collective) 행동은 거의 없다. '과학과 환경을 위한 센터'(Center for Science and Environment, CSE), 그린피스(Green Peace), 그리고 몇몇 단체들은 이 지역에서 매우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단히 유해한 농약이 연한 음료수에서 검출되었고, 농약으로

오염된 물이 식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CSE의 폭로, 자연과 야생의 보전을 위한 그린피스와 세계야생재단(Worldwide Wildlife Foundation, WWF)의 로비활동 등은 약간의 예에 불과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로비는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실패했다. 그들은 여러 중요한 면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오로지 한 가지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많은 경우, NGO들은 생계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별 고려를 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선택한 이슈들만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그린피스는 오리사 해안에 와서 짝짓고 알을 낳는 올리브 리들리(Olive Ridley) 바다의 거북이 보호자인데, 그린피스는 오리사 해변에 살면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고 있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나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이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의 기준은 아직 고안되거나 뒤따르지 않고 있다. 농촌 경제와 인도 전체경제의 등뼈와 같은 농업이 아직 무시되고 있는 농촌의 나라 인도에서는 소규모 금융활동(micro-finance activities)이 더 추구되고 있다. 상호연관적인 농촌 경제 구조는 파괴되어 개인적인 경제활동으로 바뀌고 있다. 그것은 집단적인 경제 성장보다 오히려 더 경제적 불균형 상태를 만들고 있다. 농촌의 장인(匠人)은 이제 농민들을 그의 경제활동의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리사 농민들의 투쟁

오늘날 오리사는 교차로에 서 있다. 소농 및 소외농민들(marginal farmers)의 삶과 생계는 위협받고 있다. 전체 노동력의 80% 이상이 농업에 직접 의존해 있는데도 말이다. 이 숫자는 340만 명의 경작자와 210만 명의 농촌노동자들을 포함한 것이다. 농업은 주(州)경제의 등뼈로서, 전체 노동력의 65%를 고용하고, 농촌지역 전체 농촌노동력의 80%를 고용하고 있다. 82%의 농민은 소농 혹은 소외농민이다.

오리사주(州)의 최근 '발전'은 시장의 힘과 광공업에 의해 주요 식량작

물의 재배지가 상업적 작물의 재배지로 이동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건조지대 및 고지대의 전통적 작물과 농사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주곡의 하나인 쌀 재배면적은 불과 3.76%밖에 늘지 않았다. 같은 기간에 또 하나의 주곡이면서 쌀보다 영양이 높은 수수(millets)의 재배면적은 21.7%나 줄었다. 이러한 식량재배지의 이동은 지출을 줄여야 하고 비경제적인(noneconomic)생계 상태에 있는 소농들에게 - 식량을 모으고(collection) 활동을 집중해야(gathering) 하는 일 등에서 -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식량자원의 이용도와 식량다양성(food diversity)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州)의 식량주권을 위해서도 심각한 일이다.

최근 수년 간 농약의 사용량이 66%나 증가했다. 오리사주의 서남부와 남쪽 일부의 지역 - 목화재배벨트로 알려졌다 - 에서 농약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 것은, 깜짝 놀랄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궤양, 유산의 증가, 불임, 호흡곤란, 손톱 진무름, 식욕부진 등의 일들이 이 지역의 마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농무성(agriculture department)이 채택한 기술 모델의 이전은 농민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외부에 의존하게 만들고, 전통적 지식의 기반을 대체함으로써 기술을 잃어버리게(de-skilled) 만들고 있다. 이것은 투입자재를 외부에서 구입토록 함으로써 생산비(cost of cultivation)를 점차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은행이나 사채업자에 대한 의존도와 연결되어 있는 비료, 농약, 종자 등이 농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결국 심각한 부채문제가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다. 부채의 덫에 걸려 농민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추세가 오리사주에서 형성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2명의 농민이 자살했다고 보고되었다.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였다.

생존을 위한 투쟁 : 농민들의 사회운동

오리사는 이제 거대한 수탈 사업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의 중요

한 거점이 되었다. 카시푸르, 칠리카, 니얌기리, 칼리가나가르, 그리고 포스코 반대 운동은 인도에서의 거대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바, 이 사업들은 인도 회사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MNCs)이 함께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 저항운동은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더 정의롭고,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개발의 요구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예) 포스코

포스코는 남한의 포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다국적 제철기업이다. 포스코는 2011년에 3,910만톤의 원철(crude steel)을 생산하여 세계 4위의 제철생산자로 자리매김하였다. 120억 달라 규모의 포스코 및 인도 합작 프로젝트는 - 인도에서 가장 큰 FDI가 관여하고 있으며, 산림거주공동체들의 거주지 4,000에이커를 포함하여 12,000에이커의 면적에 복합제철소 및 항구를 건설하려는 프로젝트 - 베텔(betel, 후추과에 속한 식물) 잎 재배를 중심으로 활발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오리사 주정부는 땅과 물과 광물자원을 수탈산업체(extractive industries)에 넘겨주기 위해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 1995-2011년 동안 오리사 주정부는 50,276에이커의 땅을 산업 프로젝트 개발자들에게 할당해 주었는데 거의 2/3는 사유지이다. 추가로 제공된 토지는 산업프로젝트에 필요한 도로, 철길 등의 사회 기간시설 부지로 전용되었다. 또 다른 25만 에이커는 광산업자들에게 할당되었는데 그곳은 오리사 전통 부족의 영역이다. 오리사 주정부는 외부 투자지원을 약속하고, 개발을 기원하면서, 채취 전략과 산업화에 기반을 둔 채취를 합법화하였다.

주정부는 토지 취득과 자원양도, 채취와 연관된 원시적 축적의 부차적 양식(subsidiary modes)을 통하여 직접적인 토지 탈취를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공범자가 되었다. 이러한 강제이주(displacement)가 주정부에게는

발전의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합법성을 보유하게 되어 정말 극복하기 어렵다.

소위 개발프로젝트들이 만들어낸 영향들 몇 가지를 예시해 보겠다.

① 환경에 대한 영향

정부가 추진한 프로젝트는 환경 및 지역의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항구의 건설은 위험에 처한 올리브 리들리 거북이(Olive Ridley turtle)의 서식지 파괴와 주기적으로 오는 싸이클론의 천연 방벽인 모래언덕의 제거를 예견하게 했다. 1999년도에 15,000명의 사람이 죽은 것이 한 예이다. 지난 10월의 사이클론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홈리스로 만들었다.

② 수자원에 대한 재앙적 충격

포스코제철소는 빗물로 채워지는(rain-fed)강물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할 것이다. 이미 비가 단기간 밖에 오지 않아 내부 수요와 지역농민들의 농업적 요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지역 3만 농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철소가 사용하고 버리는 배출수는 자연수의 배출(outlet)과 운하, 바다를 파괴하고 어부와 농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③ 이주와 공동체 삶의 상실

주민들은 포스코 프로젝트가 선조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생계와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전(全) 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한, 이 강제 철거는 주거권, 식량, 물, 건강, 노동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 될 것이다. 광산개발계획 때문에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선다르가르(Sundhargarh) 지역에 사는 2만여 명의 토착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④ 강제이주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과잉진압

지난 7년 간, 포스코는 오디샤(Odisha) 주정부가 프로젝트에 저항하는 평화로운 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재가한 (시위자들에 대한)공격과 진압 행동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공범자였다. 포스코에 저항하는 시민운동은 포스코와 오디샤 주정부간의 협약(MOU) 체결 직후 시작되었다. 그 후 포스코편의 폭력단은 100개가 넘는 폭탄을 저항하는 주민들에게 투하했고, 약 100명의 마을 주민들이 오디샤 경찰이 쏜 총에 맞았다. 1,500명 이상의 주민과 활동가들은 250가지가 넘는 날조된 죄목을 뒤집어쓰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체포의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할 때조차도 마을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포스코 프라티로드 산그람 사미티(Posco Pratirodh Sangram Samiti)가 이끌고 있는 포스코 반대투쟁은 중앙 및 주정부와 결탁한 국제 거대자본가의 침략에 지금도 저항하고 있다. 회사의 이익 때문에 포스코 반대운동이 억압을 받는다면, 오디샤뿐만 아니라 인도의 나머지 지역에서의 유사한 투쟁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상황은 자원 수탈 프로젝트(extraction project)에 저항하는 많은 풀뿌리 농민들의 지속적인 운동이 출현하도록 만들었다. 오리사의 수탈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이 운동은 당국에 대한 저항운동의 유산이다. 1990년대 이전의 저항운동은 댐이나 방어프로젝트나 공공 영역의 공장들과 같은 개발계획에 의한 강제이주(displacement)에 반응을 보이면서 시작되었다. 생계위협과 강제이주는 주민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상위 계급 및 하위 계급의 농민과 달릿은 계급과 카스트와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모두 이 운동에 강력하게 참여하였는데, 부분적으로는 베텔(betel) 재배를 둘러싼 독특한 지역적, 정치적, 경제 때문이었다. 이 운동은 1989년까지 지속되었는데 정부로 하여금 프로젝트를 철회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발리아팔(Baliapal) 운동은 도로봉쇄를 통해 거의 3년 동안 주정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점에서 독특한 예이다. 주정부가 준(準)군사력을 파송하려고 시도했지만 도로 위에 누워 죽을 의지까

지 보여준 여성들과 아이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그 운동은 브헤타마티(bheetamati, 가정과 난로를 의미하는 말), 소나르마티(sonar mati, 황금 대지), 그리고 마(ma, 어머니로서의 자연과 대지)라는 말로, 그리고 그들을 파괴하려는 주정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권리로 저항의 뼈대를 세웠다. 저항운동은 결국 1989년도에 프로젝트를 취소하도록 만들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고, 부분적으로는 이미 건설이 진행되었지만, 저항은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말았다. 대지 취득에 관한 이슈는 포스코로 하여금 당초 원했던 4,000에이커가 조금 넘는 부지와 연간 1,200만톤 생산 규모에서 2,700에이커의 부지와 연간 800만톤으로 그 규모를 줄이도록 하였다. 그러나 농민 주도의 이 반대운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정부의 싸움도 계속되고 있다. 여하튼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투쟁을 통해 배운 교훈

① 우리의 모든 사회적 이슈들은 상호 연결되어(inter-connected) 있다 : 공동의 이익

② 공동의 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 개발경제

③ 새로운 독립 투쟁 : 세계화된 시장 중심의 나라들에 저항하는 싸움

④ 농민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합이 가능하다.

⑤ 투쟁을 통해 삶과 토지와 생계를 선언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시장 중심의 세계화 네트워크에 저항하는 연대의 망(網)을 형성하는 것이다. 나는 이 포럼이 그 대안과 답이 되리라 믿는다. 農